



동국제강, 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에 위문금
동국제강은 7일 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 사령부 본청을 방문해 위문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은 동국제강이 기존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육군 2사단이 오는 2021년 새롭게 창설할 부대의 준비단이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과(오른쪽) 석종건 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 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대우건설, 인천 중구청과 '공동육아나눔터' 업무협약
대우건설은 인천 중구청과 지난 6일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안상태 대우건설 마케팅실장(오른쪽 첫번째),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가운데), 박사은 인천공항영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사업본부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우건설



현대홈쇼핑, 방송학계 발전 지원금 1.1억 전달
현대홈쇼핑은 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학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학회 발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이 전달한 '방송학계 발전 지원금'은 총 1억 1000만원이며,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학회 소속 신진학자 30여 명에게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운영 등의 연구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찬석 현대홈쇼핑 사장(왼쪽)과 김춘식 한국언론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홈쇼핑



최혜원 형지&C 대표 '덕분에 챌린지' 동참
패션전문기업 형지&C는 최혜원 대표 및 임직원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최 대표와 임직원의 캠페인 동참은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위치한 형지&C 본사 옥상 테라스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했다. /형지&C



한국맥도날드 대표·임직원, '창립자의 날' 맞아 감사 인사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6일 '창립자의 날'을 맞아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임원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매장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창립자의 날은 전세계 맥도날드 본사 임직원들이 고객을 더 가까이에서 접하고 응대하기 위해 매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맥도날드 고유의 글로벌 행사다. 한국맥도날드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이사(가운데)가 6일 상암DMC점을 방문해 매장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한국맥도날드

서울시의 공권력 횡포, 도가 지나치다



윤 휘 중의
잠시 심포

아무리 대한항공이 밍보였다고 해도 이권 아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얘기가.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재산인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엄연히 기업의 사유재산을 서울시가 소유자의 의사에 무시한 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송현동 부지 인근에는 경복궁과 북촌 같은 문화 유적시설들이 있고 학교도 있어 문화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 대한항공도 큰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다.

서울시가 이곳에 대해 적절한 금액, 즉 시세를 감안한 비용을 내고 매입하면 큰 문제는 없다. 송현동 부지는 약 3만6642㎡ 규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곳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알짜 부지'라 최대 7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2022년까지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유재산을 공권력이 혈값에 사실상 빼앗는 것과 다름 없다. 그것도 할부로.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개인의 사유재산쯤은 충분히 침해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무섭다. 도를 넘어선 공권력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섬뜩하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공성'을 부각시킨 뒤 기업의 자산을 싼 값에 빼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같은 안 들었지, 정부가 아니라 날강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이 곳이 문화공원으로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제값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이곳에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근처에 학교와 북촌문화지구 등이 있어 서울 중부교육청이 이 일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건립이 무산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다가 지난해 '한진그룹 비전 2023'을 통해 송현동 부지 매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지난 5월, 서울시 소유도 아닌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시에서 문화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이 부지를 사겠다고 나서겠는가. 결국 대한항공의 매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대한항공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에 관한 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조정회의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일주일 앞당겨 7일 열었다. 서울시의 속셈은 권익위의 의견이 나오기 전에 송현동 일대를 공원으로 확정하겠다는 여론전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가 심화되자 알짜사업인 기내식기판사업까지 매각했다. 그러면서도 '을'의 입장이라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며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와중에 5억원 규모의 초호화 버스정류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서 기업들 재산을 털어가려는 서울시가 과연 정상적인 지자체인지 의심스럽다. /산부부장 yhj@metroseoul.co.kr

수은-조달청, 중기 해외진출 활성화 맞손

790개사 금리우대 등 지원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이 조달청과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과 조달청은 각각 '수출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 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초기기업(수출실적 500만불이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수출계약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만을 심사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원 사업은 조달청이 기술력, 신뢰도 및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내 조달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협약을 통해 수은은 조달청이 지정한 '(G-PASS 기업)' 790개사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과 정무경 조달청장(오른쪽)이 7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대한 우선심사, 금리우대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계약 법률자문 등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달청도 G-PASS 기업 풀을 활용해 수은에 우수 조달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의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E DCF)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7일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수은과 조달청의 역량과 경험이 합쳐지면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은은 자체 수출시장 개척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공보실장 조성만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장 허태영 ◇과장급 전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바이오통과과장 류재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장 한만희 △국

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박응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지회장 △호주 멜버른 강진규 △미국 휴스턴 양철선

부음

▲최공례씨 별세, 이웅일(충북레미콘사업소 대표)씨 모친상 = 7일 오전 6시 7분,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

일 오전 9시, 02-2030-7901

▲김홍열(LX 전북지역본부 팀장)씨 별세 = 7일 오전 1시, 전주삼성장례문화원 302호, 발인 9일 오전 8시, 063-247-1003

▲정현진씨 별세, 우종록(대구시 서구의회 사무국 홍보담당 주무관)씨 부인상 = 6일 오후 11시,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층 401호 특실, 발인 9일 오전 7시, 053-940-8196